

우크라이나 전쟁 고려인 피난민 현황과 과제

전득안 센터장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피난민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공식적인 시간)

현재도 진행 중

- 전쟁 난민 : 약 1,000만명 이상(추정)
- 우크라이나 국외로 월경한 피난민 : 최소 750만 명 이상
- 약 300만 명 이상이 폴란드로 입국(한국외대 제성훈 교수)
- 그 외에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독일, 러시아 등을 거쳐 한국으로

현재 국내입국 피난민 현황

계	C-3 (단기방문)	H-2 (방문취업)	F-1 (방문동거)	E-6 (예술홍행)	F-4 (재외동포)	기타
1,280 ⁺¹²	851 ⁺¹⁰	135 ⁺¹	117 ⁺⁰	42 ⁺⁰	29 ⁺⁰	106 ⁺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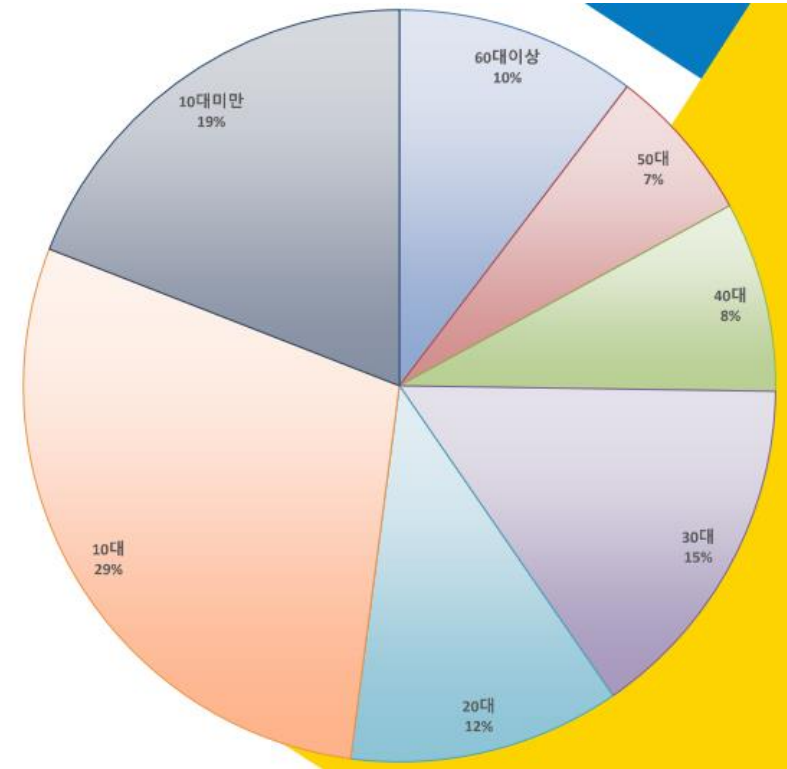
법무부 이민정보과(6월 15일 자료)

위 통계 자료는 당시 순수 우크라이나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중앙아시아 국가 국적자 또는 무국적 거주자는 제외된 수.
 포함할 경우 6월 당시 최소 1,700여명 정도로 추정.

입국자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인원비율
60대 이상	10%
50대	7%
40대	8%
30대	15%
20대	12%
10대	29%
10대 미만	19%



■ 대부분 20대 여성들이 남편 없이 자녀들과 부모를 모시고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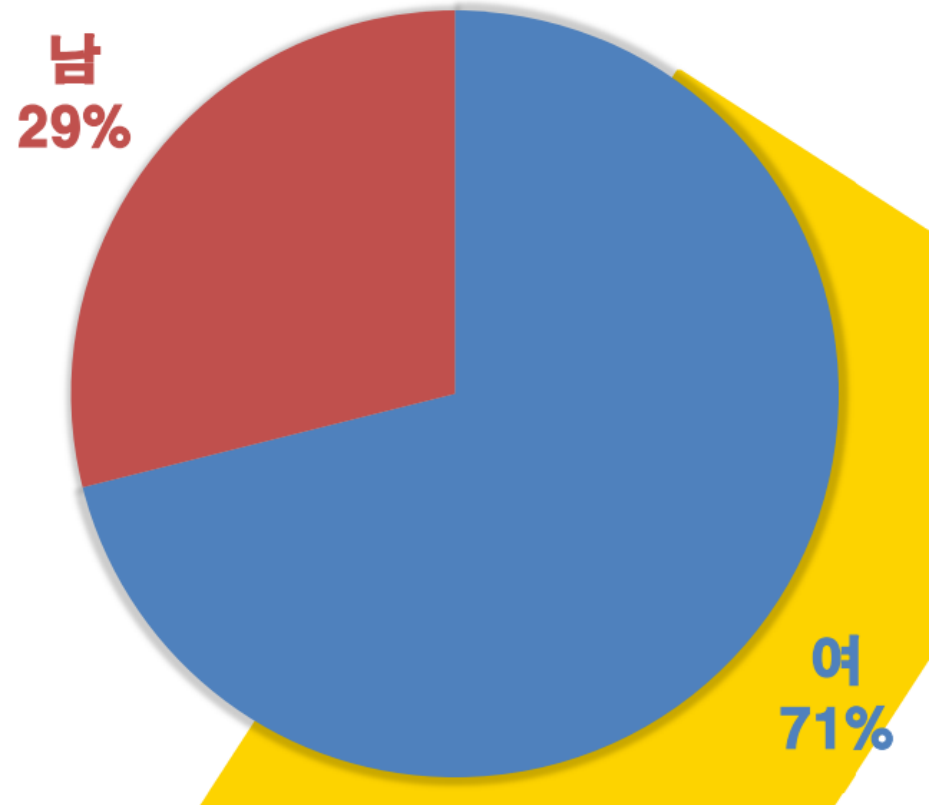
입국자

■ 성별(20대~50대)



20-50대 성별 비율

남	여
29%	71%



입국 과정

최종 **폴란드**를 통해서 입국한 경우 - 60가정 / **30가정**

최종 **루마니아**를 통해 입국한 경우 - 60가정 / **12가정**

최종 **러시아**를 통해 입국한 경우 - 60가정 / **8가정**

최종 **독일**을 통해 입국한 경우 - 60가정 / **5가정**

최종 **슬로베니아**를 통해 입국한 경우 - 60가정 / **5가정**

그러나 대부분 입국 과정 중 경유한 국가가 2~4국가로 복잡하다.

예) **우크라이나(카흐브카) - 크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폴란드**

7월 9일에 입국한 김나탈리아

국경 탈출과 입국 과정의 문제

■ 신분 증명 관련 서류 미비

전쟁 중 급박하게 피난하게 되어 서류가 완벽하지 않음

■ 국내 연고자 유무 및 입국자 성별

연고가 있는 경우 : 85%

연고가 없는 경우 : 15%

■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대책 연대(전국고려인지원단체)의 협력

- 법무부에 서류 간소화 요청 : 서류 간소화와 신속한 입국

■ 우크라이나 인근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피난민 비자 발급

-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여행증명서로 입국(90일)

우크라이나 피난동포 지원 전국 네트워크



■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대책 연대(전국고려인지원단체)의 협력

- 법무부에 서류 간소화 요청 : 서류 간소화와 신속한 입국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수

: **현재 2,500여 명**

: 광주광역시에 유입된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수 : **450여 명**

(동아일보 7월 22일자 기사)

10월 현재 600여명

(지원단체 추정치)

본 기관에서는 국내 우크라이나전쟁피난민지원연대를 통하여 연락처와 명단 및 정착지역 등을 파악하여 상담 및 정착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정착 지역 연고자

언니 부부, 남편, 딸과 사위
친구, 시어머니, 오빠와 남동생
외삼촌과 이모 등등.

그 외에 특별한 연고가 없거나(혹은 타지역에 연고가 있더라도)
광주광역시에 정착하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듣고 광주광역시에 연고가 없지만 우선 광주광역시로 왔다가
다시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소수 있음.

주거 문제

- 입국 시 대부분 정착지역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연고자의 집 (**원룸이나 투룸**)에서 먼저 더부살이
- 보통 연고자의 가족이 3-4명인 집에 피난 온 고려인의 가족 3-4명까지 평균 8명-12명이 함께 살기 시작했음.
- 각 지방 고려인집거지 인근 월세방들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약간 저렴한 편임.**
- 월곡동 인근에 방이 없고 있어도 외국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으려 함.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45만원(광주)**



주거 문제

- 입국 시 대부분 광주에 살던 연고자의 **원룸이나 투룸** 집에서 더부살이 시작
- 보통 연고자의 가족이 3-4명인 집에 피난 온 고려인의 가족 3-4명까지 함께 살고 있음.
- 새 집으로 독립하는데 약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림.
- 월곡동 인근 월세방들은 비교적 깨끗하나 타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비싼편임.**
- 월곡동 인근에 방이 없고 있어도 외국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으려 함.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45만원**

경제적인 상황

- 전쟁으로 집과 터전이 파괴되고 고스란히 놓고 나옴
- 피난 과정이 한 달 이상부터~ 수 개월까지로 짧지 않음.
- 피난 중 국경을 넘어서 서너 국가를 이동
-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피난 생활.(보통 3명, 최대12명)
- 생활비와 국경 월경 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
- 월세(35만원-45만원)와 보증금(300만원) 필요
-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비 필요

경제적인 상황

- 입국하자마자 가족들을 위해 곧바로 일자리가 필요함.
- 그러나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므로 아이 맡길 곳이 없거나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움.

건강과 질병

- 대부분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45세 이상 성인들 중에 당뇨, 고혈압, B형간염, 부인과 질환, 신경병증, 추가판탈출증, 요관요도 연조직육종, 암 등으로 정밀검진, 인슐린, 약 등이 필요함
-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 현재 암을 앓고 있거나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가 다섯명 있음(15세 남, 50세 여, 55세 여 등)

건강과 질병

-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트라우마**로 보이는 증상들이 있음.
- 우울증, 불안감,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 불면증, 사람을 피하는 모습
-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남편이나 아버지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이 심함
- 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등 전문상담사와 연계해서 검사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접수현황 자료 인터뷰 내용

“공습현장을 봤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10이라면 8~9정도 였어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서 3~4정도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청소년1(17세 남, 부모 한국거주) 인터뷰

“매미 소리도 듣기 싫어요. 어릴 때도 내전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심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시 불안감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청소년2(18세 남)

“엄마가 일하러 다녀서 하루 종일 동생을 돌봐야 해요. 날씨도 안좋고 환경도 변해서 힘들어요. 어디에서도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청소년3(15세 여)

접수현황 자료 인터뷰 내용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1(36세 남, 인천 거주)

“증상도 없이 온 몸이 다 아파요. 불면증으로 잠도 못자고 엘리베이터 소리와 ‘쿵’ 하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 힘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2(30대 여, 안산 거주)

“아이가 방에 있다가 화장실에서 비누케이스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3(20대 여, 안산 거주)

“폴란드에 있을 때 민간 봉사자 가정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마약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집 가사일을 도와야 했고, 그 사람은 자기 개인SNS에 우리 가족을 올리며 모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4(20대 여, 인천 거주)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성들은 당시 전쟁과 피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전국 1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전쟁 피난민 대책 연대]** 활동 중
- 광주광역시 NGO단체 중에는 현재 이주민종합지원센터(광주고려사람들)와 (사)고려인마을이 활동 중
-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는 실제적 지원활동 없음.
- 4월경 광산구청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이 모금활동 벌임.(모금된 금액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전달됨)
- 광주YMCA, YWCA, 로타리 등 시민단체가 모금 및 후원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들의 조속한 입국과 정착 지원을 위해 (사)너머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단체가 연대 활동
- 현재 약 600여명이 광주광역시 월곡동 지역으로 이주 추정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항공권, 주거 보증금(가구당 300만원까지-1년 기한으로)
- 월세 지원(가구당 35만원 3개월까지)
- 긴급생계비, 진료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공동모금회, 희망브릿지)

도움이 필요한 피난민 **상담 및 발굴**

- **통역, 상담을 통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의료 지원 및 의료비지원**

광주기독병원(최용수 원장), 희망샘병원(서강석 원장) 등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생필품 지원

쌀, 밀가루, 기름, 마카로니 등 식품류

이불, 옷, 신발, 책가방

여성용품, 화장지, 아기 기저귀, 이유식

장난감, 학용품, 화장품, 세제, 샴푸, 비누

과일, 야채 등등.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생필품 지원

해피박스(생필품) - 우크라이나 지원연대

자상한 상자(생필품) - 밀알복지재단

이불, 구호품류 - JTS, 대한적십자사

화장품, 세제 -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식품류 - 로타리클럽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의료 지원

광주기독병원과 진료 협약 - 지속적 검사와 진료

월곡고려의원과 사랑샘병원 - 검사 및 진료 지원

고려의료원 의료봉사단

광주제일교회 의료봉사팀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전액 지원



현재까지의 피난민 지원 활동

-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너머,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차의과대학병원상담심리학과



피난민 아동/청소년 지원활동

- 한국어 학습지원
- 친구만들기 캠프



향후 과제와 제언

지자체와 정부가 도와야 할 영역은?

- 피난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
(피난민의 수, 질병, 가지고 있는 문제점, 출신지역과 국적, 거주환경, 지원받은 내용 등)
- 아동의 학교 교육문제
- 질병치료와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제
- 주거 문제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집이나 방이 부족함)
- 일자리 연결과 육아 및 보육 문제

향후 과제와 제언

현재 난민이며 재외동포 그리고 미래의 지역사회 구성원

- 인도적 지원대상으로 전쟁 난민에 준하는 처우와 지원 필요
-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도적 배려 필요
-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연결된다

재외동포

- 재외동포 재난발생시 정부 개입으로 재외국민에 준하는 대책 필요
- 고려인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 필요

미래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다

- 고국을 찾아온 동포들이 대부분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 이들의 교육, 보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의식의 확장이 필요



감사합니다.